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선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9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얻도록 연구하고, 관심하고,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3.17(목) 오전10시 학생센터

2.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

① 일 시 : 5.31(화)까지 오전 10시 ~오후3시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제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전반기 전국 자매 온전하게 하는 훈련 안내

① 일 시 : 3.18(금)~20(주일)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③ 신청금 : 출퇴근 29,000원

2. 여름훈련 집회 안내

① 일 시: 7.4(월)~9(토)
출국일 7.1(금)~12(화)
② 장 소 : 미국 아나하임
③ 신청금: 200,000원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④ 신 청 : 집사실로 3.21(월)까지

《기타 사항》

1. 서울 전시간 20기 훈련생 해외 방문

① 중국방문 : 3.19(토)~4.1(금)
훈련생 : 강기범, 도광훈, 박은주, 김지혜, 배혜림
② 이스라엘 방문 : 3.22(화)~4.1(금)
훈련생 : 남궁송

*** 훈련생 해외 방문을 위한 지명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위트니스 리 전집 1973 ~ 1974년도(전 2권) 주문 예약

* 정가: 78,000원 / 세트 특별가 - 54,000원
* 예약 방법 : 예약금 - 20,000원 / 잔금 - 34,000원
* 예약 마감 : 3월 28일(월) 각 지역 도서 담당자에게 신청

3.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5년 겨울훈련 메시지 6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2.29.(월) ~ 2016.03.06(주일)〕

지역	1지역 (83명)						2지역 (108명)							3지역 (93명)						4지역 (119명)												5지역 (104명)				6지역 (53명)				7지역 (21명)		계
그 룹	학익	인하	신흥	청년1	청년2	대학	간석	구월	만수	장수	논현1	논현2	주안	청년	연수	동춘	청학	송도	선학	가좌	석남	신현	가정	연희	청년1	청년2	검암	당하	검단	삼산	부평	청천	산곡	효성	작전	계산	임학	중산	운남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의상	21	14	16	12	12	8	13	15	15	16	10	15	18	6	27	18	17	16	15	15	7	10	11	17	9	14	9	14	13	28	30	23	23	17	12	13	11	11	10		581
기 도	9	7	7	6	6		1	6	2	7			5		5	3	12	6	8	6	6	3	3	10	5	6	5			3	13	4	3	4	6		5	2	4		178
그 룹	7	5	7	2	5		1	7	5	10	4	6	11		14	9	13	12	12	8	6	4	2	11	5	7	6	7	2	8	19	13	15	8	8	5	5	7	8		284
아침부흥	11		7	6	6															8	5							2		10	23	16	13	13	6		7	4	6		143
어린이	11						19							12						23										18				8				9		100
어린이그룹							11							9						3																		6		29
중고등부	8						4							10						16										22				11						71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3. 13. 16-11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032-566-0190 FAX 032-567-019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E-mail : triune@nate.com

번 제 단

갈6:14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 함

번제 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 한다.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라고 말한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단은 참 제단인 십자가의 예표였다. 오늘날 우리는 제단을 가진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 매주의 첫째 날에 우리는 이 제단 위의 제물을 먹기 위해서 다함께 온다. 이 제단은 주님의 상을 뜻한다. 이 상에서 우리는 피가 뿌려진 것을 볼 수 있고 떡과 잔으로 나타난 죽은 몸을 볼 수 있다. 상에 관해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몸을 취하여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제단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상이다.

우리는 주님의 상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이 단지 잔치만이 아닌 제단임을 본다.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음식이 되었다. 이스라엘자손이 옛날에 절기를 지키려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축연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그들의 누림을 위한 음식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드리는 제단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린 것을 분배받을 수 있다.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번제 단에 관한 기록을 읽어 보면 제단에 관하여 많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나는 제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신약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천연적이고 인간적인 이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계시되어 있지 않다. 만일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었다면, 신약의 주요 기자들-바울, 요한, 베드로-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했을 것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런 설명을 찾아 볼 수 없다. 신약은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단편적으로 제공한다. 즉 조각 그림 맞추기의 조각과 같이 계시의 여러 부분이 신약 전체의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것이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구절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에서 설교자들은 종종 이 구절의 처음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절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구약의 예표나 신약의 계시는 모두 십자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놋으로 짠 그물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당신은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죽음에 놓이셨던 곳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 당신은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들을 지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못 박혔으며,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멸한 것까지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어떤가? 수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 두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을 말한 신약의 구절들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들을 읽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큰 비밀이다. 그것은 이런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묘사할 수 없다.

다른 어려운 문제는 제단 안에 있는 틀, 즉 그물과 관련된다. 그물의 네 끝에 네 개의 고리가 있다. 그러나 이

고리들도 제단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채를 위한 것이다(38:5). 그물은 안쪽에 있었으나 고리들은 바깥에 있었다. 그렇다면 고리들이 어떻게 그물에 부착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고리들이 그물의 네 끝에 있고 고리들은 제단 밖에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채를 고리 안으로 꿸 수 없었을 것이다. 고리가 그물에 부착되어 있지만 제단 밖에 있었다는 것은 퍽 이해하기 어렵다.

그물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물은 놋으로 만들어졌다. 예표에서 놋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놋으로 만들어진 그물의 의미이기도 하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제단이 놋으로 싼 조각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과 관련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단지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표인 제단이 주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조각 목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지시된, 사람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람과 관련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제단 안의 놋 그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내부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대속 물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한 불은 그리스도의 외적인 것만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태워지기도 했다. 이것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고통에 관한 시인 시편 22편에서 나타난다. 14절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 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심판이 그분의 마음, 즉 그분의 내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의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속에서 녹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바깥의 심판보다 내부의 심판을 더 체험케 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분의 고통의 외적인 방면을 말한다. 반복해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적인 심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심판도 받았다. 사실상, 그분은 외적으로 고통 받았던 것보다 내적으로 더 고통 받았다. 그물은 그분의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한 불이 태워진 곳은 주 예수님의 내부였다.

성취된 하나님의 요구들

우리는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 즉 꼭대기와 바닥사이의 절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지적 했다. 이것은 그물 위로 한 규빗 반이 있었고 그물 아래로 한 규빗 반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간증인 법궤의 높이와 같았다. 법궤의 치수는 길이와 너비가 이 규빗 반이었고 높이가 일 규빗 반이었다. 법궤의 높이는 제단 높이의 절반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구속과 온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그물은 법궤 높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간증인 법궤의 꼭대기에는 속죄소가 있었다. 이 덮개 위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모든 요구들이 성취되었다. 이것으로 인해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 오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요구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게 되었다(히 4:16). 제단의 그물이 속죄소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물의 위와 아래는 일 규뎃 반씩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요구보다 퍼 낮은 표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들의 높이의 표준에서 이루어졌다. 게다가, 그물 위로 한 규빗 반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 즉 효능도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되풀이해서 말하거니와, 번제 단은 각각 한 규빗 반씩인 두 부분으로 된 세 규빗 높이이다. 그물 아래가 한 규빗 반인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요구의 높은 표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물 위로 한 규뎃 반인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도 이 요구의 표준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두 가지는 영원한 그 영과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드렸으며, 이 구속의 성취의 표준은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이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의 표준도 하나님의 요구의 높이와 같다.

영원한 그 영과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의 두 문제는 신약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그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요구의 표준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효능 있으며, 그 효능은 이 요구들과 일치한다. 이것이 신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이다.

우리는 신약에 따른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에 대한 계시는 조각조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다. 모든 조각들을 합쳐 놓을 때라야만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셨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단지 교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실지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 영을 가졌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그 영이시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 안에서의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시다. 네 고리들은 그물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물과 고리들은 같은 재료, 즉 놋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놋 그물과 놋 고리들은 정말로 동일했다. 이것은 그물이 네 개의 고리들과 동일하다는 것, 즉 오늘날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M104-106에서 발췌〉

사랑의 분위기로 사람들을 접촉 함

요13:35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줄 알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함

활력 그룹의 상태는 하나 됨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요13:34-35).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평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깊이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해마다. 날마다 함께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간적인 애정이 분명 있을 것이지만, 활력 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상태는 이보다 더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만나야 한다.

우리는 다만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됨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온 세상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1, 23절). 이것이 사람들을 얻는 길이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두세 사람씩 나갈 때, 방문 대상자들은 우리 사랑의 분위기로 사랑들을 접촉함 가운데 하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 결과는 결국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마치 한사람처럼 나갈 때 방문 대상자들은 우리 가운데 역동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거기에 충격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영향력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 됨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온 땅 위에,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쟁과 다툼과 투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일 때 사람들이 온다면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 됨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의 제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얻기 위한 조건이자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반대하는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합당한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하나 안에 있음-살아 있는 하나, 진정한 하나, 능동적이고 행동하는 하나 안에 있음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하나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고 하나 됨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는 살아 있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는 역사하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여전히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는 정지된 하나요, 잠자는 하나이다. 우리의 하나는 매우 활동적이어야 한다. 참된 하나는 우리가 몸 안에 성도들의 필요를 들을 때 행동을 취하도록 할 것이다. 참된 하나는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우리의 모임 중 여덟 명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살아 있는 하나가 아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하나를 갖는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21, 23절).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으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늘에 속한 것, 신성한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살아 있는 방식으로 하나 됨으로 우리의 하나는 표현되고 다른 이들은 우리의 하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철저하고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상호 돌봄을 가져옴

우리는 모두 활력 그룹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당신의 부담과 분깃을 멸시하지 말라. 새로 온 사람이 그룹 집회에 와서 모든 지체들이 그룹 집회에서 말한다면 그는 놀랄 것이고 매혹될 것이다. 우리의 그룹 집회는 온 지체들이 집회에서 말함으로 살아 있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내 체험에 따르면 가장 매력적인 것은 교통을 통해 나온다. 활력 그룹에서 당신은 항상, 반드시 철저하고 친밀한 교통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의 상호적인 돌봄을 가져온다.

우리는 반드시 활력 그룹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 활력 그룹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과 시간을 다 쏟아야 하고, 활력 그룹을 지극히 아름답고 높고, 매혹적인 집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강조해야 할 유일한 것이다.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매혹할 수 있지만 활력 그룹처럼 효과적이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211-214p 발췌〉